

## 주제회의[성소수자]

## 기후위기 속 성소수자 인권과 인권 도시의 역할

2022. 10. 11.(화) 9:30-12:00

주관: 광주인권지기 활짝, 레인보우프로젝트, 광주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

## 배경

코로나19에 이어 원숭이두창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다. 두 바이러스 모두 기후위기가 초래한 자연 파괴로, 살 곳을 잃은 인간 아닌 생명으로부터 발생한 인수 공통 전염 바이러스다. 바이러스가 발생한 특정 지역 시민에 대한 낙인과 바이러스가 퍼지는 특정 집단을 향한 곱지 않은 시선 또한 비슷하다. 성소수자 등 삶의 기반이 취약한 소수자일수록 바이러스는 더 위협적이다.

2012년 광주 인권 헌장은 아시아 최초로 선포되었다. 5장 18조로 구성되고, 다양한 소수자의 권리 보장과 노동권, 건강권, 주거권 등 삶의 기본적 권리 보장을 명시한 광주 인권 헌장은, 기후위기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팬데믹 위협이 한창일 때, 성소수자는 무분별한 언론 보도로 인해 비난 대상이 된 바 있다. 청소년 성소수자 처럼 차별이 교차하는 정체성을 지닌 이들은 더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에도 성소수자가 아닌 청소년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기존 지원 체계는 청소년 성소수자를 차별하고 배제했다. 팬데믹은 모두를 불안하게 하지만, 똑같은 크기로 위협하지 않는 셈이다. 특정 정체성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사회 지원 체계는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를 차별하고 배제하며 이들의 삶을 위협한다.

2022년 세계인권도시포럼 성소수자 주제회의에서는 광주 인권 헌장에 명시된 시민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광주에 사는 성소수자에게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지 현실을 짚어본다.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활동과 청년 성소수자 욕구 실태조사 그리고 광주지역 성소수자 인터뷰와 분석에 참여한 활동가들의 토론을 통해 헌장에 명시된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성소수자 시민에게도 보장될 수 있도록 광주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논의한다.



## 목표

1. 기후 위기로 인한 팬데믹과 같은 위험이 성소수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다.
2. 성소수자를 고려하지 않은 여러 정책이 만든 차별을 확인하고, 다양한 대안 활동 경험을 공유한다.
3. 광주 인권 현장에 명시된 권리들을 성소수자 시민에게 보장할 수 있는 정책과 실천 과제를 마련한다.

## 주요 논의사항

1. 기후위기와 성소수자 인권 활동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2. 이성애 중심 사회에서 성소수자는 팬데믹을 어떻게 경험하는가?
3. 기후위기와 이성애 중심 사회 속 차별에 대응하기 위한 성소수자 인권 활동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가?
4. 광주 인권 현장 각 조항이 성소수자 시민에게 실현될 수 있도록 지자체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